



녹용 가미된 한방약, 뇌기능 활성화에 효과

- 자생생명공학연, 동물실험 통해 기억력 증진 효과 확인 -

국내 한방병원에서 만든 생약성분의 처방약이 뇌기능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원장 신준식)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UCI) 에드워드 셔먼 박사 팀과 공동으로 실시한 동물실험을 통해 생약을 복합 처방한 '육공단(六拱丹)'의 뇌기능 활성화 효과를 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지난 9월15일 밝혔다.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신경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Neuroscience) 10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병원측은 육공단이 녹용, 당귀 등을 주약재로 만든 '공진단'에 생약성분을 보충한 환약으로 간장과 심장, 신장 등의 피로회복에 주로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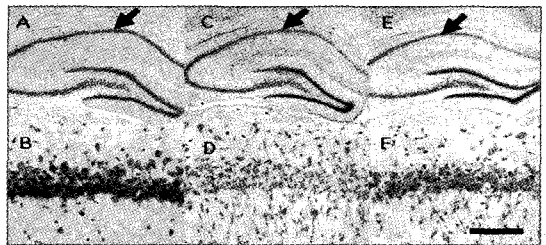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실험 쥐를 '정상 쥐'와 '뇌허혈을 유발한 쥐', '육공단을 먹인 뇌허혈 쥐' 등의 3개 그룹으로 나눠 수중 미로찾기 실험을 실시했다. 이 결과 각 쥐들이 목표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정상쥐가 10.4초, 뇌허혈 쥐가 20.8초, 육공단을 먹인 뇌허혈 쥐가 10.9초 등으로 분석돼 육공단이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물을 투여해 신경을 파괴한 쥐

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육공단을 먹인 쥐들은 신경이 파괴된 쥐들에 비해 89.7%의 기억력 회복 효과를 보였다.

특히 육공단을 먹인 쥐들은 뇌세포 증식과 재생에 크게 작용하는 'Egr1' 단백질의 발현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했다.

신 원장은 "육공단을 복용한 환자들이 기억력 증진효과가 있다고 말해 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차원에서 어바인대 연구팀과 3년간 공동연구를 실시했다"면서 "국내 한방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체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의 신경모양 : A,B는 정상적인 쥐의 신경, C,D는 신경이 파괴된 쥐, E,F는 신경이 파괴된 쥐에게 녹용을 투여한 쥐의 신경 모양으로 녹용을 투여한 쥐의 신경이 정상적인 쥐와 거의 비슷하게 보여진다.〉

〈육공단이란 : 녹용, 당귀 등을 주재료로 한 동의보감 고유의 공진단(供辰丹)을 가감해 만든 보음제(補陰劑). 우리 몸에서 호르몬과 효소 등을 일컫는 진액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피로, 간장질환, 기억력 감퇴, 신경쇠약, 집중력 저하 등에 광범위하게 처방된다.〉 **한글양록**